

[1957-01-25, 에버렛 스완슨이 후원자들에게 보내는 편지]

1957년 1월 25일

(6개 보육원이 더 추가됨)

친애하는 친구 여러분,

후원하고 계신 고아들의 사진과 어린이 정보 등의 전달이 지연되는 것에 관해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. 많이 궁금해하시고 또 염려하시리라 생각합니다.

솔직히 말씀드리면, 한국에서 도착이 지연되는 이유를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. 저는 새로운 고아들과 전쟁 과부들의 사진 약 200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. 이들 중 일부는 거의 두 달 전에 도착해야 했습니다.

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: 1) 4~5일이면 가능한 항공 우편 대신 2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해상 우편으로 발송되었을 수 있습니다. 2) 크리스마스 우편 꾸러미에서 분실되었을 수 있습니다. 3) 번역이 잘 안돼서 선교사가 다시 손을 봐야 했을 수도 있습니다.

선교사님과 한국의 원장님들에게 언제 배송되었는지 즉각적인 설명을 요청하는 편지를 썼습니다. 지금으로서는 이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. 우편물이 혹시 분실되었다면, 사진을 새로 찍고 어린이 정보도 새로 작성하여 번역하는 등의 작업을 해야 합니다. 이 모든 일에는 긴 시간이 걸립니다.

이 지연으로 인해 아직 어린이 이름 등 정보를 모르고 계신 후원자가 계시겠지만, 그동안에도 여러분의 후원금은 매월 어린이들에게 꾸준히 보내지고 있습니다. 사진이 도착하는 즉시 어린이를 배정하여 우편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
그러므로 조금 더 인내해 주시고, 기도하며,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 한국에 있는 이 소중한 어린이들에 대한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, 긍휼(compassion)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.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고 귀한 자녀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는 이 좋은 기회에 대해 여러분의 친구들, 학교, 부녀회 등에 알려주세요. 위에서 언급한 200명 중 많은 어린이가 아직 후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. 저는 어린이들을 받아들이고, 오직 믿음으로 지원할 것을 약속했습니다.

주님 안에서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,

에버렛 F. 스완슨 올림